

“불교 힘으로 문화재 지킬 것”

불교문화재연구소 개소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이사장 지관)로 확대·개편돼 10월 1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총무원 문화부와 전시 및 관리·홍보를 담당하는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의 발굴 조사와 연구·보존을 담당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라는 문화재 관리 클러스터를 갖추어 불교문화재 연구 보존에 관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문화재 정책은 과거 문화부에서 불교 음악과 미술, 문학 등의 무형문화재와 성보 등의 유형문화재를 모두 포괄해 온 것에서 시작된다. 종단 내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와 문화재팀으로 업무를 나누고 2000년에는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설치됐다. 지난 해에는 성보문화재를 기획·전시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종단 차원의 문화재 전시 및 보존처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번 연구소 개소를 통해 불교계는 문화재 관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기존에는 불교문화재 발굴의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의지해 발굴조사나 유적조사에서 불교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문화재의 일부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성보문화재로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는 발굴 뿐 아니라 출토 이후 유물에 대한 보존과 조사 연구가 중요한데 기획·조사·발굴·관리 등 불교문화재 관리를 총망라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장 범하 스님은 “올해 15억 원이었던 연구소 예산을 내년에는 3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문화재조사팀과 유적조사팀의 기본적인 2팀제에 고고학전공자 2명 등 인재를 확보하여 유적조사팀을 2개·3개로 확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충하는 등 절터(寺地) 발굴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0년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발족 이래 최초의 북한 문화재 연구인 북한 금강산 신계사 지표조사 등을 벌여온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절터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발굴에 나선다.

개소 후 신규 사업으로는 군위 인각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각사는 7세기 의상 대사가 창건하고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탈고했던 불교사적인 가치가 큰 곳으로 문헌상으로는 전해지지 않던 곳이다. 이어 청원군의 의뢰를 받아 운문사 중심의 오갑사(五岬寺)를 모두 발굴할 예정이다. 오갑사는 가솔갑사와 대비갑사, 천문갑사, 소보갑사, 대작갑사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작갑사인 운문사와 대비갑사인 대비사만 남아있다. 그 외 낙산사 건물지와 금강산 선원터, 안성 청룡사 등 차후 발굴 예정지와는 별도로 현대산개발의 의뢰를 받아 신계사 외의

내금강에 있던 사람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연구소장과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된 범하 스님은 “연구소·박물관 양대 기관의 협력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연구소 개소식에는 이사장 지관 스님과, 연구소장 범하 스님,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 윤근일 기전문화재연구원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박상국 문화재위원, 김리나 문화재위원, 이숙희 문화재위원 등 종단 및 학계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축사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매장문화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일반 연구단체에 의해 진행됐던 불교문화재 발굴을 이제는 불교계의 힘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연구소 개소 의의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철저한 고증 통한 복원 필요” 역설

신계사 낙성기념 남북공동학술발표회 개최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가 10월 13일 낙성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신계사 복원의 학술적 의의를 짚어보는 공동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를 통해 남과 북은 함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특히 원형복원의 원칙, 선 철거 후 개발 등 불교문화재 복원의 원칙과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남측의 김동욱 경기대 교수, 장호수 총북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김동욱 경기대 교수, 장순용 삼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북측에서는 리기웅 조선문화보존사 실장, 변봉문 조선문화보존사 연구사 등이 참가했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발표한 장호수 부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유적 정비복원은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

기 위한 작업이며, 특히 절터의 경우는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을 함께 고려하고 유적 정비과정에서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절터 발굴의 특수성을 짚고 “신계사의 편의시설도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충실히 완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건축물의 복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발표한 리기웅 조선문화보존사 실장은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체계화하여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가기 때문”이라 밝히고 “역사유적의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데는 역사주의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주의적 원칙에 대해서는 “고대의 건축기법을 재현하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원칙적 보수를 강조하고 “현대화된 복원물



금강산 신계사 낙성기념에서 열린 만세루 편액 제막 모습

은 아무 쓸모도 없고 복원자체의 의미도 없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때 소실돼 주춧돌만 남은 폐허 상태에서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봉사를 추진한 신계사는 2001년 남북 공동으로 지표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본격 착공한지 3년 6개월 만에 대웅전, 만세루, 극락전 등 모두 14개 전각이 복원됐다.

13일 열린 낙성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을 대표로 한 남북불교도 400여명이 참석해 신계사 복원을 축하했다.

조동섭 기자

낙산사 의상대·흥련암 명승 지정예고

예부터 관동팔경으로 불린 의상대, 흥련암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법)의 의상대와 흥련암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예로부터 관동팔경(關東八景)으로 불리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 ‘삼정 죽서루와 오십천’을 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2005년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동종을 비롯해 원통보전, 홍예문 등의 문화재가 소실됐지만, 의상대와 흥련암은 불길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의상대(義湘臺)는 의상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으로, 의상 스님의 좌선 수행처라고 전한다. 1936년 폭풍으로 무너졌다가 이듬해 증강됐으며, 1974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다.

1994년 11월 강원도의 정밀지진 결과 기둥과 기와 등이 전체적으로 10도 정도 기울어, 이듬해 육각정(六角亭)으로 복원됐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흥련암(紅蓮庵)은 의상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흥련암

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한 장소로, 강원도문화재자료 제36호로 지정됐다. 이들 문화재는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명승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달 지정예고 됐던 구례 화엄사 대화(梅花)는 천연기념물 제485호로,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佛梅)는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각각 지정됐다.

여수령 기자

금정중 ‘장수경’ 부산유형문화재로

종립학교 부산 금정중학교 역사관에 보관돼 있던 <불설 장수경 및 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 護諸童子陀羅尼經)>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금정중이 소장하고 있는 이 경전은 1562년 간행된 다라니경을 후세(後嗣)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경전은 가로 17.6cm, 세로 28.2cm로 34장으로 구성된 책이며 목판을 인쇄한 것이다. 3·1 운동의 유공자 동광 선사가 소장했던 것으로 상좌 육각 스님이 2006년 2월 9일에 금정중학교에 기증했다. <장수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불설 장수경 및 호제동자다라니경>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거나 수행을 통해 죄업을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적은 밀교 계통의 경전이다. 하성미 기자

불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불교와 뉴미디어 · 불교명명 등 주제로

불교학술단체들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불교학연구회, 불교미술사학회와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해원)은 10월 26~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대중화와 뉴미디어’라는 주제

로 종래의 학술적 담론이 아닌 실용학문으로의 불교학을 시험하는 장이 될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국제윤리상협회 볼프강 슈파르 회장과 미국 콜로라도대 마크 아메리카 교수가 각각 윤이상과 백남준의 작품에 담긴 불교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자 9인의 발표와 승무, 교방삼품이, 한량무 등의 예술공연이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가)는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명명’과 서양명명의 만남: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가 ‘불교와 종교학의 만남’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불교의 ‘철학화를 통한 근대 한국 불교의 자기 정체성 형성’을, 양홍석 동국대 교수가 ‘미국 산업주의와 혁신주의(1870-1920)시대 불교신봉자들의 사회개혁운동’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 불교와 근대적 사회제도의 만남-담론분석을 통하여’를,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현대과학의 요구에 상응하는 불교’를,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현대생명과학의 한계에 대한 불교적 모색’을 발표한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11월 10-11일 2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한국의 불화> 완공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10일 주제발표 등에 이어 11일 일본 전문가를 초빙해 야교 안료분석 등 문화재보존처리 특강을 연다.

조동섭 기자

중국 하문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 모집

한국불교박물관 사무국에서는 중국 하문에서 11월 초 개최되는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내 최대규모의 불교 관련 박람회로서 불교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박 5일의 일정동안 박람회 참관과 함께 석재, 사찰건축자재, 차 및 각종 불교용품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갖게 되는, 이번 참관단 모집에 관심있는 스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① 참관단 일정 : 2007년 11월 7일부터 11일 까지(4박 5일)
- ② 준비사항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중국비자(없으신 분은 별도 문의)
- ③ 비용 : 75만 원(중국비자비 별도)
- ④ 신청 마감 : 2007년 10월 25일까지(선착순 20명 예정)
- ⑤ 접수처 및 연락처 : 한국불교박물관 사무국 홍보팀장 조은상
전화 02)706-3493 / 팩스 02)6280-8191 / 핸드폰 011-980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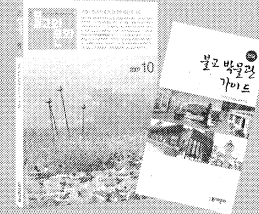
* 일정은 한국불교박물관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박물관 사무국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10월 2007



특집 | 불교 박물관, 문화의 중심에 서다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포교의 첨병, 불교 박물관을 문화적으로 조명한다.

별책 부록 | 전국 불교 박물관 가이드

전국 곳곳의 성보 박물관과 테마 전문 박물관 등 박물관 40여 곳에 대한 소장 유물 목록 및 관람 요강, 악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천 수행 이야기(를 찾아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발상록 9(녹원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연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병장에 피어있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차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술길 10 | 화성 용흥, 건흥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윤길삼 승주사
집중인터뷰 | 방학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집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로리 아재 수재비
항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부처님께 사신 공양 올리는 불자
도로통신 | 일본의 '와비사비'
법헌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